

“군공항 이전 합의를” … 11월 내 광주·전남 실무급 논의

“합평 제외 무안과 3자 논의”
전남도 제안…광주시 “수용”
무안군 참여가 관건
국방부, 군공항 이전지에
합평 적정 여부 판단도 중요



지난 2008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5년 이상 광주·전남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군·민간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지역 전체와 미래를 위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광주민간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기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내에 실무급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논의에서는 우선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 전남도·무안군·합평군 등 4자 논의 제안에 전남도가 합평군을 제외한 3자 논의로 바뀌 제시하고, 광주시가 이에 즉각 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무안군이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무안군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광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남도가 책임지고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우선 광주시와 실무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군·민간공항 이전은 지난 2008년 5월 서남권거점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한 뒤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 현안으로 15년 이상 해결되지 못한 난제라는 점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아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합평군이 포함된 4자 논의를 제안한 광주시의 공식브리핑에 17일 전남도가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무안군과의 3자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바로 광주시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3자 논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후 비공개 만남을 가진 후 진전을 보이지 못한 광주 군·민간 공항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당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시·도 실무협의체를 적극 가동하면서 유치 대상 예상 지역에서의 설명회 및 공청회 등 공동 추진, 민간 공항 문제 별도 논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김 지사는 군·민간공항의 무안 동시 이전을 주장했고,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에 보

다 적극적인 합평과 논의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사실상 대화 창구도 닫혀버렸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여전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떻게 해서든 현안 해결 의지를 보인만큼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에 앞서 국방부가 지난 2018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 해남을 다시 2020년에 고흥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합평이 이전 후보지에 들 수 있는 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합평이 군공항 이전지로 적합한 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최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경제성 검토 용역에서 무안, 합평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가 이를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성 검토로, 군 작전이나 국토방위 등 군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 따라서 합평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자격이 있는지를 밝힌 뒤 향후 논의에 나서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실천적인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이미 민선 7기 광주시는 전남도, 무안군과 2021년까지 이전을 약속했지만 어진 바 있다. 이후 무안군에서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급속히 번졌고, 전남도 역시 기피시설인 군공항 이전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고집하기 보다는 국방부가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군공항의 합평 이전도 염두에 두면서 광

주 국내선의 통합을 위해 보다 노력하는 등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이전시켜야 하는 광주시와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전남도가 지금까지의 반복과 마찰을 이겨내고 상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상호 설득 가능한 방안을 창출해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IMF “한국 2028년까지 2.1~2.3% 성장”

한국 경제가 오는 2028년까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오는 2025년 2.3%를 기록했다가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당장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에는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중기적인 시야에서는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너와나목장’ 숲으로 복원한다

무등산 중턱에 위치한 흑염소 목장인 ‘너와나목장’이 숲으로 복원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해발 500m 지점에 자리한 ‘너와나목장’ 일대의 환경성을 복원하는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4만㎡의 너와나목장은 1980년부터 2019년까지 흑염소 300여 마리를 방목해 키운던 곳으로, 목장 관련 시설과 흑염소 방목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부터 목장 부지를 매수해왔고 올해 3월에는 ‘무등산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 및 대국민 생태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해에는 복원을 앞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복원은 보전지역, 자연보전지역, 인공복원지역, 생태교육·체험으로 공간을 구분해 2033년까지 각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이뤄진다.

주변 식생과 유사한 형태로 유지돼 있는 ‘보전지역’은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 염소 먹이로 심어진 키가 작은 관목류가 많은 ‘자연복원지역’은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무등산 자생 식물인 신갈나무 등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자연 회복에 나선다. 또 ‘인공복원지역’은 자생식물을 심어 자연 숲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매몰된 다랭이논은 생태습지로 조성하며, 기존 축사는 생태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난 40여 년간 훼손했던 사유지의 생태계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1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울아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기
- 광주 송원고(24회), 한양대 법학과(92학번) 졸업
- 인천지검(외사, 사형) / 광주지검(특수, 의약)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조세, 보험, 경제, 지적재산권)
- 방위사업비리합수단 파견검사
-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특수, 강력, 마약, 금융)
- 의정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강력, 여성아동, 성폭력)
-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 부장검사(관세, 외환, 출입국)
- 법무연수원 응인분원 교수(신원검사 교육)
- 울산지검 인권보조관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진철민 올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7·18층
대표전화 : 02-2046-1300 | 직통전화 : 02-2046-0869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사건브로커 수사 헌직 치안정감까지 대상 ▶6면

KIA 오키나와 캠프 - 싸움닭 투수로 키운다 ▶18면

호남의 누정 - 광주 군산정 ▶22면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